

# 광양시, 여름 맞이 '7월 여행 코스' 추천

백운산자연휴양림·광양와인동굴  
광양예술창고...문화체험과 함께  
1박 2일 여행부터 한나절 코스  
무더운 여름더위 힐링코스 극복

광양시가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여름을 건강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7월 광양 여행코스를 소개했다.

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와인동굴 등 폭염을 피하면서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과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등을 구성해 선보였다.

반일코스 '광양에서 한나절'은 유당공원-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인서리공원 등을 잇는 코스다.

유당공원은 푸조나무, 팽나무 등 500년을 굶은 고목과 아담한 연못이 그윽한 풍취를 자아내는 유서 깊은 정원으로 한가로이 거닐며 사색에 잠기기에 좋다.

인근 전남도립미술관은 수준 높은 전시로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발휘시켜주는 곳으로 전시의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카페까지 전시 영역을 확장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벨기에 출신 리너스 반 데 벨데의



광양와인동굴.

'나는 육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전은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뛰어넘는 실험과 모험으로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폐창고를 재생한 광양예술창고는 미디어아트, 이경모 아카이브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술 공간으로 층고 높은 공간이 주는 자유로움과 낭만을 선사한다.

일본 주택의 전형적인 공간 구성 양식을 보여주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교 연습관 내 직원 관사로 전시, 체험 공간으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광양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는 당일코



광양예술창고 아카이브 공간.

스는 백운산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즐거움미식-서울대학교남부연습관 관사-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광양와인동굴&광양에코파크~구봉산전망대를 투어한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에 생태숲,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산림문화공간으로 녹색 감성을 해소시켜 준다.

페터널을 재생한 광양와인동굴은 항상 17.5℃를 유지하는 여름 성지로 낭만적인 와인의 세계와 사유의 정원, 빛의 판타지아 등 환상적인 미디어아트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구봉산전망대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수, 순천, 남해를 한눈에 조망하고 반짝이는 광양만 야경까지 즐길 수 있다.

'광양에서 별 헤는 밤' 1박 2일 코스는 자연과 문화,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첫날은 유당공원-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즐거움 미식-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인서리공원-광양와인동굴-구봉산전망대-이순신대교 코스다.

둘째날은와우생태호수공원-김시식지~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 등에서 느긋하게 1박 2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순신대교는 광양과 여수를 잇는 현수교로 '철로 만든 하프'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곡선미를 구현해 광양의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와우생태호수공원은 맨발길, 자연생태 관찰로, 산책로 등을 갖춘 곳으로 수련, 연꽃, 부들이 감성을 자극하는 생태공원이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은 운동주의 시에 담긴 별, 동경 등의 서정과 포구, 섬, 바다가 주는 낭만을 거닐 수 있는 감성공간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7월 광양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와 여름휴가를 겨냥해 울창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고 문화예술 향유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면서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일상에서 소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월별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마실 거트 떠나는 한나절 코스부터 구석구석 전민목을 발견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까지 소요시간, 동선 등을 고려한 여행코스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희망도서관의 '생애 첫 책 지원사업'이 지역민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생애 첫 책 선물로 행복한 독서 시작 응원

### 광양희망도서관

광양희망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광양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그림책을 나눠주는 '생애 첫 책 지원사업'이 지역민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릴 경험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희망도서관은 올해 광양시에서 태어난 350여 명의 신생아에게 택배를 통해 책 꾸러미를 전달했다. 책 꾸러미에는 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 2권과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아기 회원증, 친환경 가방이 포함돼 있다.

그림책은 아기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초기 언어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선정됐으며, 부모들이 아기와 함께 책을 읽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책 활용법 동영상도 담

긴 QR코드를 책 표지에 부착해 함께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할 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희망도서관에서 집으로 책 꾸러미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집에서 아기와 함께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책을 받은 부모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시민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의미 있는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책을 통해 아기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생애 첫 책'을 받은 아기들은 초등 1학년이 될 때까지 성장 발달 단계별로 4회에 걸쳐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추가로 받게 되며 광양시 희망, 중마, 용강, 금호도서관에서 배부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희망도서관(061-797-3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지역을 바꾸는 문화예술교육' 본격 시동

### 광양문화도시센터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지난 5월 전남문화재단에서 공모한 '2024년 행복전남 문화지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활성화에 나선다.

센터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숲속 밝은 별 문화지소' 사업을 추진해 광양읍에 소재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174.55㎡, 등록문화재)를 거점으로 지역 내 문화공간과 연계한 기초문화예술

(교육) 거점 활성화, 문화 인력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마을로 간 교실' △취향 기반 시민 문화 소모임을 지원하는 '매시러운 시민클럽' △문화공간 특화프로그램 기획인력 양성 및 시범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문화공간 특화프로그램 기획자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오는 9일까지 광양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예술

가와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10명 내외로 선정한 후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강사)은 광양시 및 광양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광양문화도시센터 이메일(gycc2022@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문화도시센터(061-761-07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농업인 복합공간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 조성

광양시는 농업인들의 스톱비즈니스 복합공간의 명칭을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로 확정하고 9월 개관을 목표로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및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해 '농업인 스톱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사를 본격 시작했으며, 지난 4월 명칭 공모 등을 통해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로 명칭을 확정했다.

### 광양시보건소, 여름철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 당부

광양시보건소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후 탈진, 오심,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는 1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52.24㎡ 규모로 조성되며, 광양읍 서천면에 위치해 인근 장미정원, 200년 수령의 팽나무 정원과 어우러진 2층 건물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창농실, 2층에는 미디어창작실(촬영, 편집실)과 창농쉼터 등이 있다. 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홍보와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교육, 사진·동영상 촬영과 편집

등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도 높은 보급형 장비를 갖춘 미디어창작실은 교육수료자의 경우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농실은 체험농장이나 농특산물 홍보, 농업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 조성으로 농업인들의 소통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SNS 등 농산물 판로개척과 홍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상 발생 시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 취하기 △건강 상태를 살피고 무리하지 않기 등의 예방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술이나 카페인 음료 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기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되도록 야외활동하지 않기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하기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기 △혈액하고 가벼운 밝은색의 의복 착용하기 등 주의가 필요하다.

광양=안영준 기자